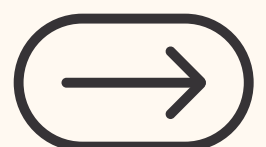




"이 정도는 그냥

대학생활에서 흔한 일 아니가요?"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겪는 인권 이야기



"이 정도는 그냥

대학생활에서 흔한 일 아니가요?"



단톡방, 조별과제, 아르바이트, SNS까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도
인권과 관련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넘겼던 그 순간,
혹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01. 단톡방

"단톡방에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

조별과제 단톡방에서 한 팀원이 계속해서 답장을 하지 않자,

"○○님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이럴 거면 그냥 조에서 빠지세요."

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올라왔다.

이후 다른 팀원들도 함께 비난하기 시작했고,
당사자는 단톡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

01. 단톡방

"단톡방에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



공개적인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단순한 '의견 전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보다,

당사자에게 먼저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02. 조별과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조별과제 발표를 앞두고
한 팀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역할 수행이 어려워졌다.
그러자 팀원들은

"한 명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 보잖아."

"그냥 네가 밤새서라도 해."

라고 말했다.

물론 공동 과제에서는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비난 하는 것은 적절할까요?

02. 조별과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등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적절하지 않습니다.



협력은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며 함께 해결하는 것

03. 아르바이트

"알바생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근무 중인 대학생 A씨에게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업무 연락이 온다.

"내일 일찍 나와줄 수 있지?"

"단체 채팅방 확인했으면 답장 좀 해."

"학생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A씨는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계속해서 요구를 받아들인다.

03. 아르바이트

"알바생이니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입니다.



근로조건, 임금, 휴게시간 등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낮춰 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04. SNS

"SNS에 올리는 건 내 자유 아니가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친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SNS에 게시했다.

친구가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친구끼리 사진 올리는 건데 뭐가 문제야?"

"싫으면 네가 SNS를 안 하면 되지."

라고 대답했다.

04. SNS

"SNS에 올리는 건 내 자유 아니가요?"



SNS에서도 서로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공유되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기 전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개인정보나 사적인 내용은 함부로 공유하지 않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SNS에서 소통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상대방도 괜찮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인권, 함께 지켜주세요!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계정 팔로우하고
일상 속 인권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hallym_hhrc



팔로우

인권 서포터즈 4기 송은채